

# 第13回「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參加記

## 〈特急 世界一周記 第1部〉

社團 法人 大韓電氣協會  
 事務局長 太 仁 善

美國 토마스·엘바·에디슨財團 理事長 Walker L. Cisler 氏와 이탈리아 電力公社 (ENEL) 總支配人 (社長) Arnaldo M. Angelini 氏의 招請을 받아 이탈리아에서 開催된 第13回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 : 科學靑少年의 날」 行事에 參加할 機會를 가졌다.

### 〈서울→Roma→Venezia〉

4月 7日 저녁 CPA 機便으로 Tokyo 까지 가서 一泊하고 8日 午前發 Alitalia 機便으로 Roma 까지 直行하였다.

途中 Manila, Bangkok, Bombay 및 Tehran의 4個 都市에 暫時 着陸, Manila 와 Bangkok 은 사이도 좋게 35°C 라는 酷暑이어서 機內에서 空港 待合室까지 가는 짧은 時間에 받은 氣溫差에서 오는 衝擊이 자못 強烈하였다. Bombay 와 Tehran 에는 各各 日沒後와 深夜에 寄着하였는데 無數한 寶石의 소리 없는 交響樂과도 같은 大都市의 燦爛한 夜景이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느꼈다.

4月 9日 午前 2時頃 Roma 와 Leonardo da Vinci 空港에 到着. 時間表上으로는 寄着 4회를 包含하여

約 16時間의 飛行이나 Tokyo-Roma 間의 時差가 8時間이니 結局 一晝夜 24時間을 꼬박 飛行한 셈이 된다.

Roma 市街와는 反對便이 되는 地中海岸의 Fregene 라는 小邑의 航空會社 指定호텔에서 걸지 않은 時間이나마 잠을 請해본다. 疲勞가 지나쳐서인지 結局 失敗. 거의 뜯은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첫 飛行 機로 Venezia 로 간다.

Venezia 의 Marco Polo 空港의 information counter 에는 連絡處의 電話番號가 적힌 傳言이 기다리고 있어 電話를 거니 사무리가 너무나도 이탈리아 式인 英語이긴 하나 곧 車를 보내 주겠다는 뜻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 于先 한시를 놓는다. 正確한 到着日時를 連絡할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出發前 數日間의 어수선한 狀況이 새

상 想起되었다.

이탈리아電力公社 Venezia 支店の Capolla 夫人 및 Pasinetti 氏가 기다리고 있는 廣場이 바로 모든 陸路交通機關의 終着驛. Venezia 로 가는 사람은 누구를 莫論하고 여기서 車에서 내려 배로 갈아타게 되어 있다고 한다. 世界에서도 獨特한 立地條件을 가진 水都 Venezia 의 交通機關으로는 陸地의 taxi 에 該當하는 motor boat 와 bus 에 該當하는 ferry-boat 外에 馬車格이라고나 할 gondola 가 舊時代의 遺物로서 남아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上記 兩人과 motor boat 로 有名한 Grand Canal 을 달려 Venezia 의 心臟인 San Marco 廣場에서 얼마 안되는 海邊가의 Danieli Excelsior 호텔에 旅裝을 쓴다. 稀微한 記憶으로 남아 있는 中學時節의 外國地理와 西洋歷史의 斷片的인 知識 플러스 飛行機 속에서의 Venezia 觀光案内書 通讀 플러스 亦是 飛行機 속에서의 速成 이탈리아語 基本單語 工夫가 내가 가진 知識의 全部이었으나 逆S字型的 Grand Canal 과 그 沿邊의 古色蒼然한 歷史的 建造物들이 제법 親近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Napoleon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應接室」이라고 激讚한 San Marco 廣場을 가진 이 「아드리아海의 寶石」이 映畫나 매스콤을 통하여 너무나 널리 우리에게 紹介되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中世紀의 貴族의 邸宅이었다는 Danieli Excelsior 호텔은 于先 格調높은 室內裝飾에 舊世紀風의 威嚴 있는 家具什器로 東方의 나그네를 壓倒한다. 展望이 絶景인 食堂으로 올라가니 華麗한 色彩의 制服의 給仕들이 食事의 시중을 작듯이 드는데 百萬長者級은 되어 보이는 外國人 觀光家族들의 푸짐한 食事光景이 오히려 興味롭게 느껴질 뿐 別般 食慾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非單 睡眠不足에서 오는 疲勞의 탓만은 아니었으리라.

酒精의 힘을 빌어 오래간만에 간신히 假睡를 取하고 市街散策에 나선다. 傍若無人한 비둘기의 배와 屋外카페의 스트링·밴드가 演奏하는 纖細한 왈츠曲의 旋律 속에서 觀光客의 波濤가 늘릴거리는 곳이 바로 San Marco 廣場이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應接室」이라는 表現이 아무런 抵抗없이 그대로 首肯이 간다. 映畫 「旅愁」에서의 Catherine Hepburn 의 熱演 演技를 想起하면서 人波를 헤치면서 廣場을 벗어나니 사람들이 겨우 스치고 지나

갈 수 있을 程度의 좁은 골목과 數 많은 (大小 400個의 다리가 Venezia 의 步行交通路의 中樞를 이루고 있다.)다리 밑을 四通八達한 大小의 運河와 이끼건 建物들이 歷史의 貫錄을 誇示하면서 遠來의 나그네를 情답게 맞이하여 준다.

### <生産研究施設見學會>

「國際에디슨誕生日記念祝典：科學靑少年의 날」(International Edison Birthday Celebration: Science Youth Day) 行事에서 記念式과 더불어 二大支柱를 形成하고 있는 生産研究施設見學會가 이탈리아 全國을 9個 地域으로 나누어 4月 10日에 一齊히 實施되었다(總括表 參照).

生産研究施設見學會 總括表

班	生産研究施設	會社名	所在地	參加者數	
				學生	教師
				116	41
1	自動車工場	FIAT	Torino	10	3
2	電氣技術試驗所	CESI	Milano	16	6
3	家電機器工場	ZANUSSI	Pordenone	15	5
4	石油化學工場	ANIC	Ravenna	11	4
5	火力發電所	ENEL	La Spezia	12	5
6	原子力發電所	ENEL	Latina	16	4
7	原子力發電所	ENEL	del Garigliano	11	5
8	鐵鋼工場	ITALSIDER	Taranto	11	5
9	石油化學工場	SINCAT	Priolo	14	4

筆者는 이 중에서 第3班의 見學會에 參加하였는데 그 概況은 아래와 같다.

Venezia 와 다리로 連結되어 있는 小工業都市 Mestre 에 集合한 見學團 一行은 交通公社 職員의 引率 아래 배스로 一路 北으로 向한다. Treviso 를 지나 Conegliano 라는 곳에서 小休息. 알프스의 速峰이 손에 잡힐 듯 左側에 展開된다. 제법 冷冷한 空氣에 이탈리아式 커피가 더욱 香氣롭다. 이 고장까지는 東洋人의 足跡이 아직 別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탓인지 중중보 老主人의 血色 좋은 童顔이 好奇心에 가득찬다. 速成 이탈리아語로 커피맛을 稱讚하였더니 破顔大笑 速射砲 같이 쏟아져 나오는 말의 뜻은 잘 알아들을 수 없으나 人間家族으로서의 親近感을 느끼기에는 別로 支障이 없다.

Conegliano 에서 東北方 Venezia 로부터 約 200里 地點에 位置한 Porcia 의 Zanussi 家庭電氣機器工場이 우리의 最初의 見學處이다. 工場內 事務所의

正面에는 工場長 以下 幹部들이 나와서 見學團 一行을 鄭重하게 歡迎한다. 筆者의 案内는 涉外擔當理事 Lucio Censky 氏가 終日 맡아 주었는데 「英, 佛, 獨語中 어떤 말로 通譯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最初의 質問으로 미루어 이 會社의 國際的 去來가 相當히 廣汎한 것임을 于先 짐작할 수 있었다.

Industrie A. Zanussi 會社의 現況을 資料에 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1969年 1月 現在).

總塋地面積： 2,500,000m<sup>2</sup>  
 建物面積： 520,000m<sup>2</sup>  
 從業員數： 15,000名  
 一日生産量： 16,000臺  
 工場數： 13個所  
 國內販賣所數： 180個所  
 輸出國數： 120個國

Censky 氏에 依하면 이 會社는 各種品目 總生産高에 있어서는 유럽 第2位이고 其中 1個 品目(冷藏庫라고 記憶이 되나 確實치가 않다.)은 유럽 第1位를 占하고 있으며 半世紀를 넘는 歷史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大를 이룩하기에는 지난 10年간의 成長이 特別히 急進的이었다고 한다.

Porcia 工場에서는 주로 洗濯機, 冷藏庫, 炊事用器具等 大型 家電機器를 生産하는데 그 施設이 大 大함은 勿論이려니와 最新式 設備과 工程을 採用하고 있음을 門外漢인 筆者도 쉽게 알 수 있었다. 1時間 以上을 繼續 걸으면서 Censky 氏의 細密한 說明에 熱心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 睡眠不足에서 오는 疲勞가 掩襲한다. 從業員 食堂에서 氏와 함께 閑談으로 若干의 休息을 取한 다음 氏의 車로 바로 이웃인 Pordenone 로 向한다.

이곳은 Zanussi 會社의 發展과 더불어 約 10年前부터 急激히 成長한 人口 5萬의 新興都市로서 建物이나 거리가 理想的이라고 해도 좋을 程度로 整然하게 計劃되어 있어 마치 公園안을 往來하는 氣分을 일게 한다. 때마침 點心時間이라 學校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푸르고 맑은 이탈리아의 하늘 아래 어린 사슴들처럼 幸福하게 오간다.

Villa Ottoboni 호텔 別館 食堂에서 食事. 中世紀의 建物이 內部만 改修되어 그대로 使用되고 있는데 食堂支配人이 spaghetti의 正統的 食事法을 實演해 보이면서 루비色 葡萄酒를 勸하는 등 至極히 家族的인 雰圍氣이다.

午後에는 Pordenone 近郊 Vallenoncello 에 있는

電子機器工場을 見學. 11"의 携帶用으로부터 25"의 大型에 이르기까지 各種 黑白 TV 外에 컬러 TV 도 生産하고 있는데 Censky 氏의 꾸준한 說明으로 TV 製作의 工程을 어렵곳이나마 비로소 把握할 수가 있었다.

午後 5時頃 見學團 一行은 會社 幹部 및 案内員들과 作別人事를 交換하고 버스로 Venezia 로 向한다. 일찍부터 産業이 發達되고 所得水準이 유럽에서도 上位에 屬하는 이탈리아 北部 Po 江 流域의 平野地帶는 또한 人口密度가 가장 稠密한 地方이기도 하다. 坦坦한 道路에 즐이은 自動車의 交通量, 플라타나스 以外에는 이름도 모를 各種 品位있는 街路樹의 秩序整然한 行列, 豊饒한 農土에 그림같이 雅淡하게 들어앉은 農家の 安定感 등 北方의 찬바람을 막아 주는 알프스連峰의 保護 아래 있는 風光明媚한 이 地方이 알차고 보람있는 生活을 營爲하는 福된 사람들의 故郷이라는 것을 遠來의 나그네에게 納得시키기에 조금도 不足이 없다.

버스를 내려 motor boat 로 갈아타는 地點에는 Capolla 夫人이 기다리고 있다가 Grand Canal 沿邊의 歷史的 建物들의 이름과 由來 등을 熱心히 說明해 주면서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 英語보다는 佛語가 오히려 流暢한 상냥한 이 老婦人은 Venezia 土産이다. 젊은 世代가 앞을 다투어 他郷으로 移住하는 傾向이 있지만 自己는 Venezia 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一生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오직 幸福만이 가득하다.

### <이탈리아 行事的 組織>

4月 11日에 있었던 記念式과 午餐會의 實況을 紹介하기 前에 이번 이탈리아 行事的 組織狀況에 言及할 必要를 느낀다(括弧內는 英譯).

#### 1. 名稱:

Giornate della Scuola e della Ricerca Scientifica (School and Scientific Research Day)

#### 2. 主催:

①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 CNR (National Council of Research)

② Federazione delle Associazioni Scientifiche e Tecniche = FAST (Fede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ssociations)

### 3. 準備委員會

會 長……CNR 會長

副 會 長……① FAST 理事長

② Giorgio Cini 財團 副理事長

名譽委員……Thomas Alva Edison 財團 理事長

委 員……10名

AEI, FIAT, Esso Standard Italiana, ENEL, ENI, Pirelli, CNEN, IRI, Finmeccanica, Montecatini Edison 代表 各 1名

(實務責任者……ENEL 研究調查部 次長 Lino Richard 氏)

### <記 念 式>

記念式은 4月 11日 午前 10時부터 Venezia 南쪽의 數個의 外廓島 中의 하나인 San Giorgio Maggiore 島(Venezia 映畫祭가 舉行되는 Lido 島와 隣接해 있다.)에 있는 約 400年前에 建立되었다는 雄大한 教會에서 舉行되었다.

Walker Cisler 氏, James Cook 氏 夫妻와 筆者는 準備委員會側 要人들과 같이 먼저 昇降梯로 鐘樓 위의 觀望臺까지 올라가서 북지한 歷史의 壓力이 皮膚로 느껴지는 듯한 可謂 breathtaking 한 Venezia 의 panorama 를 鳥瞰한 다음 눈에 익은 Tintoretto 의 名畫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걸려 있는 여러가지 用途의 數많은 房들을 求索하였다.

記念式의 正式 名稱은 Cerimonia Conclusiva in onore di A. Volta, T.A. Edison, G. Marconi (Concluding Ceremony in honor of A. Volta, T.A. Edison, G. Marconi)으로 되어 있어 Edison 以外에 이탈리아가 낳은 偉大한 科學者 Volta 와 Marconi 를 close-up 시킨 것이 異彩로우면서도 부럽다고 느꼈다.

記念式場으로는 主要 禮拜堂으로 보이는 큰 홀이 使用되었는데 壇上에는 準備委員會側에서 會長團外 數名과 外國來賓으로서 Cisler 氏 및 筆者, 市長, 政府代表 等 總計 10名이 자리잡고 一般來賓과 學生, 教師는 홀의 벤치에 亦是 10列로 座席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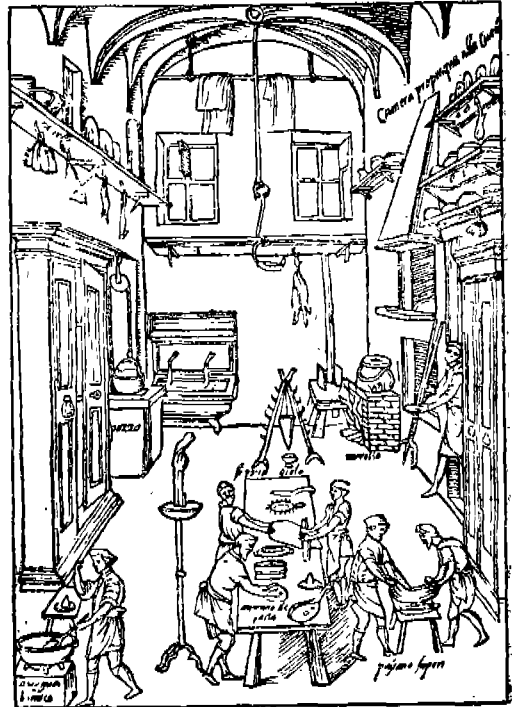
法衣와 法帽과 그리고 사람들이 敬意를 表하는 程度로 보아 教會의 高位聖職者인듯한 初老의 두분과 에디슨財團 專務理事 Cook 氏 等도 最前列 座席에서 조용히 式의 進行을 지켜보고 있다.

司會者의 開式辭에 이어 오늘 行事의 모든 經費

를 負擔한 것으로 推測되는 Giorgio Cini 財團 副理事長 Lino Sartori 氏의 人事를 筆頭로 Venezia 市長, CNR 代表, 이탈리아電氣電子協會(Associazione Elettrotecnica ed Elettronica Italiana=AEI) 代表, 에디슨財團 代表(Cisler 氏), 政府代表(外務次官)가 各己 人事말을 하였는데 이탈리아語로 通譯된 Cisler 氏의 人事 以外에는 一切 이탈리아語 뿐이어서 仔細한 內容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이 遺憾이었다.

AEI의 會長을 兼하고 있는 ENEL 社長 Arnaldo Angelini 氏는 對 에디슨財團 및 對 韓國 關係 連絡을 맡아온 이번 行事의 總司會官格인 분으로서 Cisler 氏와 筆者가 遠路 參席하여 주어 感謝하다는 紹介의 말이 그의 人事 가운데에 包含되어 있었다. Cisler 氏의 人事는 그 內容이나 迫力이나 態度에 있어 敢히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는 堂堂한 것이었는데 大西洋橫斷이 이번으로 123번째라는 말은 特別 印象의이었다.

다음 順序로는 CNR 會長 Vincenzo Caglioti 教授의 “Commemorazione di A. Volta, T.A. Edison e G. Marconi”라는 特別講演이었다. 亦是 通譯이나 翻譯文 같은 것이 없어 約 1時間을 담담하게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으나 發明王 Edison 과 이탈리아



<中世紀 이탈리아 貴族家庭의 廚房 光景>

가 세계에 자랑하는 偉大한 科學者 Volta 및 Marconi의 業績과 逸話を 紹介하고 靑少年科學徒들에게 科學技術分野로의 精進을 呼託하는 內容일 것으로 어림없이 짐작은 되었다.

이어서 마지막 順序인 優秀學生에 對한 表彰狀(diplomi d'onore) 授與가 있었다. 壇上의 10名이 各己 自己 앞에 놓인 11名 또는 12名의 學生에 對한 表彰狀을 呼名과 握手로써 한사람씩 授與하는 方法을 擇하고 있었는데 短時間에 秩序整然하고 和氣藹藹한 가운데 끝이 났다.

### 〈午 餐 會〉

優秀學生과 同伴教師를 爲한 午餐會(Pranzo in onore degli Studenti e dei Professori Partecipanti)는 San Giorgio Maggiore 島에 隣接한 Giudecca 島에 있는 Cipriani 호텔의 食堂에서 베풀어졌다.

아름다운 樹木에 둘러싸인 킹·짜이즈 水泳풀이에 메탈드色的 鮮明함을 뽐내고 있는 高級 호텔이었으나 食堂은 그다지 넓지가 않아 테이블 사이로 보이는 往來가 若干 힘이 들 程度로 座席이 狹 들 어차 있었다.

달콤한 이탈리아 葡萄酒를 呑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飲料水와도 같이 푸짐하게도 마신다. 보이들이 테이블 사이를 曲藝師와도 같이 누비고 다닌다. 午餐會의 感興이 차츰 高潮되자 하이·우타브의 放談과 哄笑가 심포니를 이룬다. 라틴民族의 樂天的이며 外向的인 性格이 거리낌없이 發散된다.

Cisler 氏와 筆者는 드디어 싸인攻勢를 받는다. 記念品으로 한卷씩 받은 書籍 內表紙를 내밀고 Prego! (Please!) 하며 싸인을 附託하는 學生들이 蜂을 잇는다. Cisler 氏는 學生들을 激勵하는 短文을 ——이 刻明하게 써 주고 있었으나 筆者는 이름과 COREA 만으로 때웠는데도 나중에는 팔이 아플 지경이었다.

116名의 優秀學生 中 女學生은 20名 未滿으로 보였다. 모두 該當 地域에서 嚴選된 IQ 높은 學生들이다. 世界的으로 定評있는 이탈리아·모오드의 옷차림과 구두가 各樣各色이면서도 格調 높은 調和感이 제법들 어스스럽다. 喫煙도 自由라고 한다. 모두 地域別로 어제의 見學會에 參加하고 나서 밤 飛行機로 이곳 Venezia에 集合하였다고 한다. 國內航空도 大部分 jet機를 날리고 있어 輸送問題는 別로 어려운 問題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韓國사람을 처음 만나는 學生들이 大部分인 것 같다. 第一外國語가 英語인 學生들 中의 좀 뻣장있는 혹은 여러가지 質問을 筆者에게 물어오기도 한다. 好奇心과 知識慾이 豊富한 젊은이들이다. 眼鏡度數로 보아 相當한 近視眼인 學生代表格인 젊은이의 眞摯하고도 說得力있는 即興演說과 拍手喝采를 끝으로 오늘의 午餐會는 푸르고 밝은 이탈리아의 하늘에 잘도 어울리는 人生謳歌의인 雰圍氣 속에 그幕을 내렸다.

### 〈이탈리아 行事의 所感〉

記錄에 依하면 今年의 第13回 International Edison Birthday Celebration 을 1969年 4월에 이탈리아가 主催하기로 最終的으로 確定된 것은 昨年 11月 13日에 에디슨財團 專務理事 James Cook 氏와 ENEL 社長 Arnaldo Angelini 氏가 美國 Washington, D.C.에서 만났을 때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側으로서는 어떤 不得已한 事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나 그後 準備의 進行狀況에 關한 連絡이 杜絶되어 에디슨財團側을 極度로 焦燥唐惶하게 만들다가 今年 3月 14日에야 "Venezia-10~11 April"로 確定되었다는 電文連絡이 왔다는 點으로 미루어 準備期間의 不足으로 當初에 舍意된 基本計劃이 實踐되지 못한 것이 몇가지 있었음은 不得已한 結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중의 하나가 美國과 韓國 以外에도 유럽諸國으로부터 相當數의 來賓과 學生教師代表를 招請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實現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에디슨財團側으로부터도 理事長과 專務理事 두사람의 參席者 밖에는 오지 못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에디슨財團 理事障의 相當數가 夫人同伴으로 遠路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던 1964年의 日本의 경우와는 너무나 對照的인 現象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對象業體의 積極的인 協調를 얻어 秩序있게 進行되어 實質的인 成果를 올린 見學會라든가 人工的인 作爲로서는 到底히 期待할 수 없을 程度로 自然스럽고도 嚴肅한 演出 效果를 낸 Renaissance 時代의 教會에서의 記念式的 차분함과 素朴함은 可謂 印象的인 것이었으며 에디슨財團으로부터도 높은 評價를 받은 것으로 筆者는 보았다.

## 〈Venezia 觀光〉

午餐會가 끝난 後 主催側의 Caglioti 氏, Sartori 氏, Angelini 氏 等과 Cisler 氏, Cook 氏 夫妻 및 筆者 等の 外國來賓은 motor boat로 Venezia 外廓의 礁湖 (註: 環礁로 둘러싸인 水面, lagoon)를 形成하고 있는 섬들을 둘러보았다.

가장 有名한 섬으로는 Murano 島가 있는데 13 世紀의 옛날부터 世界的으로 이름높은 유리製品 (Venezian glass)이 生産되는 곳이다. Murano 島 건너에 있는 Burano 島는 레이스의 製作으로 이름난 곳이고 Torcello 島는 現在는 사람이 얼마 살고 있지 않으나 西紀 639년에 北쪽으로부터 移住한 初期 Venezia 人이 築造한 教會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12~13世紀頃의 것이라는 mosaic 模様の 内部裝飾이 歷史의 香氣를 풍기고 있어 觀光客들이 끊임 없이 없다고 한다. 英國의 엘리자베스女王 內外분이 訪問하였을 當時의 寫眞이 크게 걸려 있는 中世紀式 構造의 食堂에서 따뜻한 茶와 間食으로 休息을 取한 一同은 저녁 무렵에 Venezia로 돌아왔다.

Angelini 氏, Sartori 氏 夫妻, Cook 氏 夫妻, 筆者의 一行은 夕陽의 San Marco 廣場과 San Marco 聖堂 等を 좀더 綿密히 求景한 다음 어둠이 깃든 골목길을 이리저리 散策하고 疲倦은 하였으나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充足感을 滿喫하면서 호텔로 돌아왔다.

## 〈Roma 觀光〉

4月 12日, 아침 일찌기 Cisler 氏 및 Cook 氏 夫妻와 호텔에서 作別. Cisler 氏는 10日 深夜에 Venezia에 到着하여 어제의 行事に 參席하고 오늘 첫飛行機便으로 Detroit로 돌아가는 것이다. 19日 午前에 Detroit에서 다시 만나기로 約束이 되었다. 같은 호텔이어서 두어번 食事を 함께 하기도 하였으나 이탈리아側 손님들도 同席이어서 事務的인 이야기는 別로 하지 못하였던 터이라 明年度 韓國行事に 關한 協議를 Detroit에서 하자는 Cisler 氏의 要請에 依한 것이다. Cook 氏 夫妻는 西獨 Munich에 用務가 있으며 유럽 數個國을 旅行하고 21日 以後에 歸國豫定이라고 한다.

10時 30分發 Alitalia 機로 Venezia를 出發하여 한 時間後에 Roma에 到着. ENEL 本社에서 보내준 自動車로 「永遠의 都市」 Roma로 들어간다. 宿所는 Roma의 數많은 綠地帶 中에서도 가장 그 面積이 넓으며 有名한 美術館과 動物園을 그안에 가지고 있

는 Villa Borghese 公園에 바로 隣接한 Parco dei Principi 호텔. ENEL 本社의 營業擔當 理事 Eugenio Marciani 氏가 기다리고 있어 2日間의 滯留豫定期間의 스케들을 協議.

時間에 쫓기는 나그네는 첫째 貪慾하여야 하고 둘째 機敏하여야 한다는 自己나름의 哲學에 따라 食事後 바로 ENEL 車로 호텔을 出發. 오늘의 觀光은 于先 Roma의 全貌를 걸으려면 보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觀光地圖를 運轉手에게 맡기고 氣分나는대로 되도록 넓게 되도록 오랜 時間을 車를 몰아 달라고 附託하니 손짓이 날말數보다도 더 많은 意思疎通方式이건만 용케 알아듣고 “Si, Si!” 한다.

세時間 程度를 途中 너덧군데에서의 下車를 除外하고는 繼續 드라이브하고 나니 Roma 市の 舊市街部는 거의 돌아본 셈이 되었다.

Marciani 氏의 저녁 食事 招待를 懇曲히 辭讓하고 Ristorante Tokyo를 홀로 찾아가게 된 理由는 至極히 單純하고도 散文的이다. 故鄉며 난지 10餘年은 姑捨하고 不過 5日이건만 祖上傳來의 된장과 간장 냄새가 벌써 그리워지더라는 이야기. 다같은 사람이 먹는 飲食인데 어느 나라 飲食인들 무슨 그리 問題가 되리 하고 尋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生理的인 嗜好만은 適應에 限界가 있는 모양이다.

淡泊한 날生鮮에 쌀로 빻은 술을 마시고 된장국에 쌀밥을 먹고 나니 한결 生氣가 나는 것 같다. Kimono 차림의 女人들의 나긋나긋한 상냥한 接待와 젊은이와 中늙은이들이 한데 섞인 日本人 觀光團의 조출한 酒宴마저 무르익어 가니 이름은 分明히 Roma의 한구석에 혼로 앉아 있겠건만 Tokyo의 어느 飲食店에 들어온 것 같은 錯覺마저 일으키게 된다.

호텔에 돌아와서는 觀光地圖와 案内書を 相對로 오늘의 결합기式 觀光의 復習을 한다.

4月 13日, 日曜日. 오늘은 좀더 重點的으로 Roma를 보는 날이다.

午前中에는 觀光배스를 타본다. 몇군데 호텔에서 豫約된 손님을 태우는데 英獨語班과 佛西語班으로 손님을 分類하여 各各 다른 배스에 태운다. 年間 2, 500萬名이 넘는 觀光客(1965—66 統計)이 찾아오는 觀光王國의 面目이 生動하는 느낌이다. 外國人 觀光客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달은 8月이고 그 다음이 9月, 7月, 6月の 順이라고 하는데 몇군데의 下

車說明地點에서는 버스가 長蛇陣을 이루는 大盛況이다. 眼鏡과 카메라로 特徵지워지는 日本人 觀客의 數도 들던 바와 같이 相當히 많다.

Tokyo에서 Roma까지의 Alitalia機에서 kimono차림의 日本人 스튜어디스가 스시(초밥)을 써어비스하던 光景이 새삼 想起된다.

콜르씨엄(古代 Roma의 大圓形演技場: Colosseo)에서 暫時 동안의 自由時間을 틈타서 그렇게도 流暢한 英獨語를 어디서 배웠는가를 老婦人가이드에게 물었더니 60才 内外로 보이는 그녀는 뜻밖에도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헝가리인이었다. 華麗하던 過去를 回想하는 듯 視線을 위로 돌리면서 그녀가 들려준 事緣은 이러하였다. 大富豪이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教育을 爲하여 英, 佛, 獨, 瑞西等 여러나라로부터 家庭教師를 招聘하였으며 數 많은 雇傭人들도 헝가리人 뿐만은 아니었다. 人生은 오직 薔薇꽃 花園 같은 것으로만 알았을 그녀에게 第二次大戰과 共產執權은 國外亡命이라는 막다른 길을 擇할 것을 強要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定着한 곳이 이탈리아이고 어린 時節의 아버지의 財力과 教育熱이 오늘날의 그녀의 糊口之策을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云云.

午後에는 다시 ENEL車로 亦是 重點的인 觀光에 나선다.

廣場과 噴水와 彫刻과 그리고 教會와 繪畫와 彫刻의 온·파레이드 Roma. 西曆前 數百年代의 人間의 建造物까지도 그렇게도 용케 保存되어 있는「永遠의 都市」Roma. 「Roma는 하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는 말의 참뜻이 그렇게도 쉽게 理解가 가는 Roma.

바티칸市(Citta del Vaticano)의 San Pietro 教會를 舊市街 見學處의 最終 코오스로 잡은 것은 偶然이었으면서도 잘 된 일이었다고 하겠다. 萬一에 아직까지도 「人間은 지시하고 보잘 것 없는 動物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頑強한 特級 否定主義者가 있다면 이곳에 와서는 그의 입에서도 「人間은 亦是 偉大한 生物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기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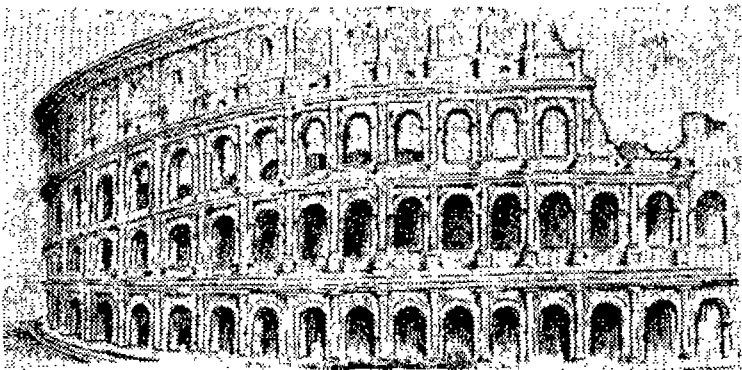
舊市街의 東北方 올림픽競技場(Stadio Olimpico)一帶와 正南方의 新市街(EUR:Esposizione Universale di Roma)의 超現代感覺의 計劃都市를 돌아보고서야 3,000年の 歷史의 魔術的인 重壓感에서 겨우 깨어난 듯하여 곰곰히 생각해 보니 Trevi 噴水에서 銅錢을 던지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다!

4月 14日.

Marciani 氏의 案內로 ENEL(Ente Nazionale per l'Energia Elettrica: National Electric Energy Agency) 社長 Arnaldo M. Angelini 氏와 理事會長 Vito A. Di Cagno 氏를 禮訪. 滯留中の 物心兩面의 厚誼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 韓國의 電氣事業의 現況과 將來에 關하여 懇談을 交換한 다음 作別人事를 하였다.

Marciani 氏와 그의 部下이며 貴族風의 美男인 Francesco B. di Aragona 氏와 함께 由緒깊은 某 레스토랑에서 名物이라는 生鮮料理로 點心을 들고 午後 飛行機로 「永遠의 都市」 Roma와 情다운 나라 이탈리아에 作別을 告하였다.

(次號에 繼續)



<古代 Roma의 大圓形演技場: Colosseo>

하여 送配電 等 供給系統의 維持, 補修, 施設擴充 業務를 擔當토록 하고 過去 서울支店 傘下에 있던 營業所 中 該政府營業所를 除外한 其他 7個 營業所를 支店으로 昇格시키는 機構改編을 斷行하였다.

(2) 大韓電線株式會社(社長 薛卿東)는 日本의 東芝電機와의 技術提携下에 家庭用電氣機器 (冷蔵庫, 에어콘디셔너 等)를 製作販賣하여 왔는데 今年 2月 부터는 다시 TV受像機의 市販을 始作하였다.

(3) 株式會社 金星社(社長 具貞會)는 西獨 시엔즈會社와의 技術提携로 2百萬弗의 財政借款을 얻어 列車集中制御裝置(CTC)의 部分品을 導入하여 開發할 計劃이라고 한다. 따라서 國內 鐵道信號用品生産에는 東洋精密工業株式會社와 같이 兩社가 參與하게 된다.

(4) 利川電機工業株式會社(會長 張炳贊)는 지난 2月에 日本 東芝系의 西芝電機株式會社와 技術援助 契約을 締結하고 新規製品인 디젤交流發電機 製作에 着手할 計劃이라고 한다.

(5)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理事長 李壬得)은 2月 13日 世宗호텔에서 第6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李壬得氏를 理事長으로 再選하였다.

(6) 東海電力株式會社(社長 金鍾大)는 2月 27日 同社 會議室에서 第1回 定期株主總會를 開催하고 社長에 金鍾大氏, 會長에 申鉉禧氏를 選出하였다.

(7)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理事長 柳基淑)는 2月 27日 메트로호텔에서 第7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柳基淑氏를 理事長으로 再選하였다.

(8) 大韓電氣學會(會長 禹亨曠)는 3月 6日 學會 會議室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會長에 禹亨曠 서울 工大 教授, 副會長에 韓萬春 延世大 理工大學長, 辛基祚 韓電 理事를 各各 選出하였다.

(9)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會長 尹日重)는 4月 5일부터 3日間 電氣主任技術者 教養講習會를 서울 大學校 大講堂에서, 그리고 4月 16일부터 1個月間 電檢指導講習會를 電氣會館 講堂에서 各各 開催하였다.

(10) 大韓電子工學會(會長 吳鉉禎)는 4月 24일부터 3日間 最新電子通信技術에 關한 세미나를 電氣會館 講堂에서 開催하였다.

#### ◇ 海外出張

(1) 丁來赫 會長(韓電 社長)은 日本 東京에서 開催된 韓日協力委員會 發起總會 兼 第1次 年次總會에 韓國側 代表團의 一員으로 參席하기 爲하여 出張(2月 11~16日).

(2) 張炳贊 副會長(利川電機會長)은 日本의 關係 業體와의 業務協議次 出張(4月 10日~29日).

★ ★ ★ ★ ★

#### <P. 36에서 繼續>

心を 나타내는 句節이다. 이詩篇을 읊으며 數 많은 猶太人이 울었고 또한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決心하였다. 언젠가는 Jerusalem을 恢코 찾을 것이라고. 이 民族의 聖地 Jerusalem! 곧 그것은 이 民族의 精神이며 生命이다. Jeff氏는 말한다. “우리는 그 무엇하고도 Jerusalem을 바꿀 수 없으며 萬一武力으로 이 聖都를 빼앗으려 한다면 은 이스라엘 民族은 最後의 一人까지 싸울 것이며 그때로는 恢코 내놓지 않을 것이다.”

物質萬能, 金錢至上의 風潮가 가득한 現代에 精神력이 그 얼마나 貴重하고 또 그 얼마나 強靱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民族과 Jerusalem이다. 이것은 또 앞으로 飛躍을 期待하며 努力하는 우리 民族에게도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外形의 物質의 成果에만 滿足하여서는 안된다. 眞實로 우리가 民族의 中興을 成就하려면 이스라엘 民族이 2,000年間の 數 많은 苦難을 克服하고 自己 民族의 일이 깃든 Jerusalem을 다시 恢은 그 強靱한 精神力과 같은 民族精神에 依하여서만이 可能하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